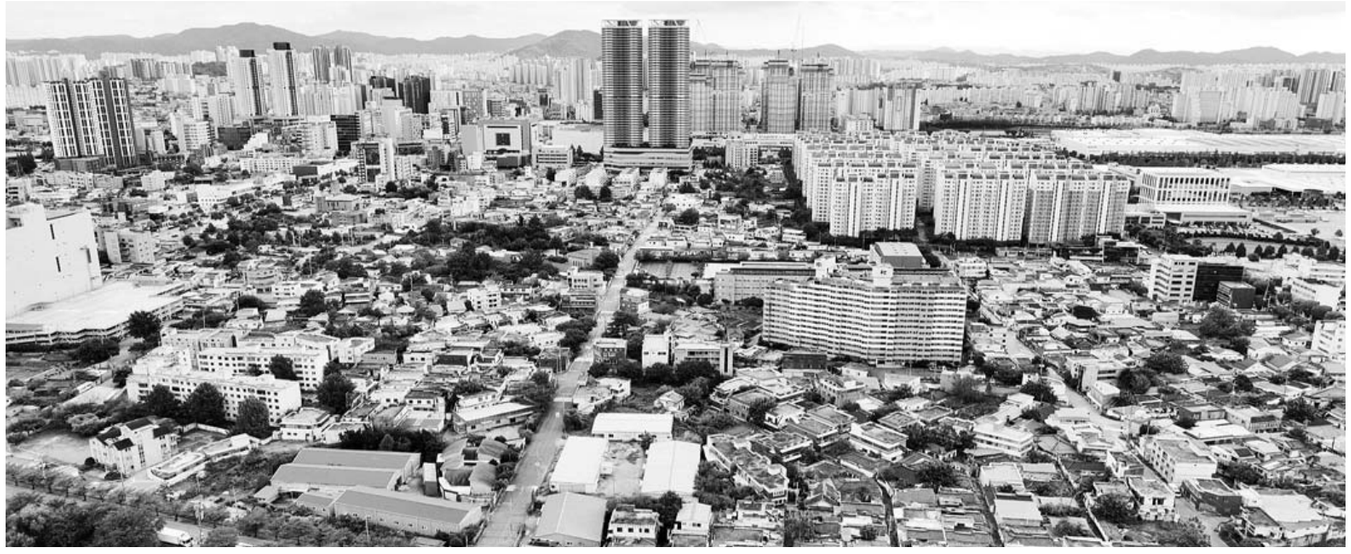
장기 지연 광천동 재개발,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사업성 대폭 개선

옛 시민아파트 부지 내 역사공원 신설

공공시설 확충·순환형 교통 체계 개편

창의적 도시 경관…2029년 완공 목표



광주 서구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고층과 중층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광천동 670번지 일원 전경.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인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역 내 최초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장기 지연됐던 사업이 속도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고층과 중층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24만3천649㎡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서울, 세종, 울산 등 신도시 개발지에서 확산 중인 제도로 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단지 내 자유로운 배치와 입면 설계를 허용해 혁신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건물 간 최소 거리인 인동거리·높이 제한 완화로 토지 활용 효율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번 지정으로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최고 45층, 5천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공원 등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일조권 확보를 전제로 일부 단지의 층수를 기존 33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인동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0.8-1배에서 0.7-0.8배로 완화했다.

특히 단지 내 남북 방향으로 폭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지하 2층 규모의 단지 간 연결통로(폭 12m 이상)를 설치해 주민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이 밖에도 건물 간격을 넓혀 단지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녹지와 공개공지, 휴게 공간 등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기반시설 개편과 공공시설 확충도 포함됐다. 옛 시민아파트 부지는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돼 광주항쟁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는 시민 역사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천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면적 2천633㎡에서 3천426㎡로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도 함께 증설된다.

근린생활·판매·교육연구시설용지도 늘어나 지역 생활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다.

교통 체계 역시 순환형 구조로 개편된다. 주요 간선도로인 중로 2-507호선과 509호선이 연장·확장되고 일부 도로는 폭원이 15-20m로 넓어진다. 특히 천변 인근 일부 교량을 확장·신설하는 등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광천동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4월 세대 수를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변경안을 제출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조합과 서구청이 도로 확장, 교통대책, 시민아파트 보존 방안 등에 합의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광천동 재개발은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4년 간 착공이 미뤄져 왔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철거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를 통해 도심 경관을 한층 끌어올리고 건설기술 수준도 함께 높이고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교통 흐름 개선과 공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만큼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코스트코-소상공인 상생발전 본격화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협약 체결 방침

순천·광양·여수 저리 경영안정자금도

전남도가 글로벌 유통체인 ㈜코스트코코리아의 순천 선월지구 투자 유치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을 본격 추진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30일 코스트코코리아와 순천 선월지구 내 신규 입점을 위한 1천2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2029년 개점을 목표로 실시계획 변경, 건축심의, 상권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스트코의 선월지구 투자 유치를 통해 쇼핑, 관광, 청년 정주여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 등 지역 경제 활력은 물론, 전남·전북·경남권까지 아우르는 상권 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코스트코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도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생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과 지역·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 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상공인과 윈-윈 하도록 코스트코와 순천시,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 간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우수 농수산물·중소기업 제품 우선 입점 등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상생협약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한다.

지역 소상공인 대상 500억원 규모의 저리 경영안정자금과 특별보증도 지원한다. 특히 특별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증수수료(0.8% 고정) 부담을 경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광양·여수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월 납입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연 최대 24만원 범위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개발 '새청무' 쌀 본격 수확

단백질 함량 5.6% 밥맛·품질 우수

전남에서 주력으로 육성·생산되는 품종인 '새청무' 쌀이 본격 수확기에 들어섰다. 새청무는 밥맛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해 전남도가 집중 보급하고 있는 전략 품종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청무는 2017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현재 전남 벼 재배 면적의 62%, 전국 단일품종 17%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새청무 쌀은 '제26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에서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을 휩쓸기도 했다. 올해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중 9개 브랜드 쌀이 '새청무' 품종이다. 단백질 함량도 최저 5.62%를 유지하고 있다. 2027년부터 쌀 단백질 함량 의무화가 시행되면 전남 쌀 유통 확대가 기대된다. /양시원 기자

내일부터 '빛고을 책마당' 2차 행사 시작

12일까지 시청 야외광장서

이낙준 작가 강연 등 다채

광주시는 11-12일 시청 야외광장과 열린청사에서 '2025 빛고을 책마당' 2차 행사를 연다.

광주시는 지난 9월 '노벨 문학상과 평화상'을 주제로 한 1차 책마당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2차 행사는 '책이랑 날자:북(Book) & 락(樂)'을 주제로 열리며 문학의 대중적 확산과 문화적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K)-문학'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시민이 책과 함께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독서문화 축제로 운영된다.

의사 출신으로 '중증외상센터:골든아워', '포스트 팬데믹' 등을 집필한 이낙준 작가의 강연을 비롯해 클래식 콘서트(앙상블 '선'), 북마켓, 야외도서관, 별빛 시네마, 힐링 요가,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청년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웹툰 특별존'을 운영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와 독서문화 콘텐츠를 준비했다. /변은진 기자

▶1면 '낙후의 대명사'서 계속

광주시는 또 "광주·전남은 국가와 민간 AI인프라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AI산업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상생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AI는 모든 산업을 이끄는 성장동력이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이미 조성된 '국가AI데이터센터'에 더해 초거대 '국가AI컴퓨팅센터'와 대한민국 AI산업의 싱크탱크가 될 '국가AI연구원' 등 3대 국가 AI인프라를 완성할 것"이라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는 광주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의 하나 된 힘'"이라며 "광주의 하나 된 열망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닿을 때 미래가 열린다.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시대, 광주가 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8년전7억매수 / 5억3,000처분]
광주 신안동 먹자통 상업지100평
2층건물 주차6 다용도건물

[은행감정가 6억2,000/급처분4억]
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8층
135평 승강기1 주차40대

[대출감정가21억/급처분가17억]
목포 상동 로데오 4층상가빌딩
보증금5,000 월세1,250(부가세별도)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